



취임 100일 맞은 주영섭 중기청장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서 ‘될만한 협력사’는 지원해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청장은 지난 2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육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을 따져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권 등에서 해당 업종의 업체라고 색안경을 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조정 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지방 중소기업청장들에게 피해 예상 중소기업의 회생전략 마련을 주문했다”며 “정부 안이 확정되면 대상 업체를 모두

만나보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주 청장은 ‘글로벌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 국내 수요 감소를 완화하도록 한다는 것. 그는 “일본은 조선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현지 기자재업체의 경쟁력은 떨어져 국내 업체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며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도 경쟁을 치열하지만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방식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논평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동감한다”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금을 받지 못해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거나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를 해 돈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등받이·팔걸이 모두 접히는 ‘바른자세 의자’

서준석 체어플러스 대표는 29년 ‘의자’라는 한우물만 쫓았다. 대학 졸업 후 사무용 의자업체에 근무하다가 2005년 체어플러스를 설립했다. 창업 이후 특화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의자를 선보였는데 그중 접이식 의자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특히 좋았다. 쓰지 않을 때 여러 개를 겹쳐 보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었다. ‘등받이만 접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의자처럼 팔걸이까지 모두 접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3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해 ‘당키의자’를 내놨다. 세계 최초로 등받이와 팔걸이를 모두 접어 쌓아둘 수 있는 기능성 의자다.

접은 당키의자 여러 개를 겹쳐 쌓을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 팔걸이를 접은 모양이 당나귀 귀를 연상시켜 당키의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등판엔 메시 소재를 써 땀이 차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했다. 팔

29년 의자 만들기 ‘한우물’ 3년 노력끝에 세계 첫 개발

등받이가 허리 잡아줘 오래 앉아도 통증 없어

여러개 겹쳐 쌓을 수 있어 공간 활용도 좋고 운반 편해

라스틱 소재로 제작해 가볍고 운반이 편리하다. 의자를 접어 넣고 다닐 수 있는 가방도 있다. 종류는 좌식, 입식, 고정형, 4~5인용 연결형, 발받이형, 세미나형 등 10여개에 달한다. 분홍 연두 하늘색 등 색상도 다양하다. 가격은 7만원대에서 17만원 선이다.



서준석 체어플러스 대표가 등받이와 팔걸이가 접히는 ‘당키의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학교 관공서 등에서 인기
서 대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등받이 부분이 허리를 잡아줘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체공학 제품을 내놓기까지 난관이 없지 않았다. 개발비만 4억원가량이

들었다. 그는 “접히는 팔걸이 금형을 설계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다. 당키의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장점 때문에 관공서 등 공공기관 등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 전국의 학교 경찰서 동사무소 등에 납품하고 있다. 정부조달우수

제품으로도 선정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한다. 서 대표는 “좌식 형태 제품은 일식집 등 음식점에서 인기가 높다”며 “가볍고 휴대하기 좋아 낚시 동호회와 보트 동호회에서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의자 전문 중소기업으로’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좌식 문화가 보편화된 일본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 물꼬를 튼 체어플러스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국내외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기능성 의자도 속속 내놓고 있다. 발 받침대가 접히는 의자를 비롯해 가슴받이와 팔받이가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편리한 의자, 변형 가능한 의자 등이다.

서 대표는 “품선한 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래 앉아 있더라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의자”라며 “기능성 의자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현동기자 likesmile@hankyung.com



테라스하우스 그곳에 꽃이 피다

친밀하면서도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가 재편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가 ‘나’를 말하는 대신 가족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집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는 것. 마당 있는 집이 그 중심에 있다.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으로 떠오른 테라스하우스의 실을 엿본다. 테라스하우스의 실거주 및 투자 가치를 비롯해 분양 계획까지 짚어봤다.



Special theme 낮설어 흥미롭다! 국악의 시대 열린다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악이 ‘신선하고 즐거운 것’으로 변신하고 있다. 국악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국악 공연장과 아카데미에 줄을 이으며, 새로운 국악 트렌드를 형성한다. TV 등 대중 매체에서 국악의 재발견이 이뤄지고, 화제가 된 콘텐츠는 온라인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지친 현대인의 마음에 ‘김홍도’도 다가간다. 그야말로 국악의 환골탈태다.

Inheritance & Tax
Global focus
인공수정 자녀의 상속권
Save on your tax
몰래한 증여
money & team
법무법인 지평 상속·기업승계팀

Asset
focus
위기의 한국 경제가 사는 길
global monitor
포스트 오일 시대, 사우디의 미래

Retirement
Second act 인생설 비문준영이(가)의 대표
인기 금융 강사로 제2의 전성기
Lifestyle design
면역력 증진, 이것만 지켜라

Life&
Other view
건축공수실제로 제대로 된 집짓기

Focus 혼외자들의 외로운 상속 전쟁

Special liberal arts 세계 미술 시장과 중국의 파워 컬렉터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피델리티테크놀로지-ADASCAM옵티언(02)6675-0202 △솔미테크-가정용 헬스카메라 리핏캠(070)7558-9877 △이디픽-구강세정기 워터프로스(063)236-0988 △체어플러스-당키의자(031)435-2244

삼강엠엔티, 해양플랜트 최단기간 제작

FPSO모듈 공사 기간 20% 단축...업종 침체 속 선전

해양플랜트 전문기업 삼강엠엔티가 한국기록원(KRI)으로부터 원유생산 저장역설비(FPSO) 톱 사이드 모듈 최단기간 제작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내 대형 조선사의 구조조정 속에서도 중견업체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강엠엔티가 최단 기간 제작 인증을 받은 FPSO 톱 사이드 모듈. 삼강엠엔티 제공

삼강엠엔티가 이번에 공급할 모듈은 호주 북서부 200km 해상에 있는 ‘익시스 가스전’ 개발공사에 투입될 예정인 FPSO의 상부 부분이다. 2개로 구성된 이 모듈은 각각 무게가 2000t이 넘는다. 심해에서 추출한 가스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해양플랜트 설비 가운데서도 가장 난도(難度)가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강엠엔티는 이 모듈을 약 10개월 만에 제작해냈다. 국내 대형 조선사도 1년 이상 걸리는 작업 기간을 20%가량 단축한 것이다.

해양플랜트 제작 분야에선 공기가 곧 생산성이다.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이 결정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작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주된 이유 중 하나도 공기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송무석 삼강엠엔티 대표(사진)는 공기 단축을 위해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임시 사무실로 썼다. 이곳에서 매일 오전 6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배관·조립·도장 등 각 공정에서 상충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다. 선주사인 호주 인페스가 곧 생산성이다.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이 결정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작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주된 이유 중 하나도 공기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삼강엠엔티는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 1923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44% 증가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해양플랜트 기업들로부터 수주하는 등 시장을 다각화한 것이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인재관리 ahnj@hankyung.com

소상공인연 “김영란법 개정해야”

‘명절 특수’ 실종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 요청에 적극 동의한다”며 “김영란법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수 위축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목인 ‘명절 특수’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어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녁 식사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국회 재검토 요청에 적극 동의한다”며 “김영란법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수 위축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연기하거나 예외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오공 ‘터닝메카드 한정판’

완구전문기업 손오공이 29일부터 ‘터닝메카드 골드 스페셜’(사진)을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골드 스페셜은 터닝메카드 인기 캐릭터인 캣시, 나백작, 타이탄, 킹조스 등 4종으로 구성됐다. 터닝메카드 최초의 한정판 제품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금속으로 마감 처리했다. 기존 종이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플레이트 메카드’ 세 장도 제품 구성에 포함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